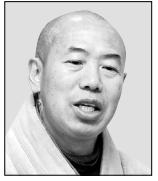


일 주 문



장병 및 군인가족 수계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2월 8일 육군 1891부대 무극사에서 장병과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선지식 초청 일요법회
청주 관음사 주지 합현 스님은 2월 1일 학당선원 원장 학담 스님, 3월 1일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초청 선지식 일요법회를 개최한다.



고양시 조계종 주지협의회 회장
고양 길상사 주지 보산 스님은 1월 22일 일산 여래사에서 열린 고양시 조계종 주지협의회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새해맞이 법주사 참배
불교여성개발원 박순 원장은 1월 24~2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2백여 회원과 함께 새해맞이 행사를 진행, 새로운 여성불교운동을 발원했다.

태고종 총부총무원장 도안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총부총구 15대 종무원장 도안 스님과 부원장 덕해 스님의 취임법회가 1월 17일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제15대 종무원장에 취임한 도안 스님은 "15대 집행부는 냉철하고 엄정하게 승가본분인 화합중이 되도록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흥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前이사장 별세

부산 흥법사 창건주이자 불심홍법원 하도명화 前이사장이 별세했다. 1월 20일 향년 93세. 빈소는 부산 동아대 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2일 오전 5시 동아대 병원에서 엄수됐다. 이어 흥법사에서 노제 및 불교의식을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거행했으며 영락공원에서 다비를 진행했다. 하도명화 전 이사장의 49재는 흥법사에서 3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봉행된다.

보현의 집, 이기표 원장 별세

부산 보현의 집 이기표 원장이 별세했다. 1월 20일 향년 57세. 장례식은 부산 침례병원 61호실에서 진행됐으며 발인은 1월 22일에 엄수됐다. 이기표 원장은 15년간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 원장을 역임하며 노숙자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복지 활동에 매진해왔다. 또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불교 활동에 이바지 해왔다.

“시대에 맞게 도량 일신 진력”

남판우 봉은사 신임 신도회장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를 이끌어 갈 새 신도회가 구성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1월 17일 봉은사 부유당에서 남판우 신임 신도회장(법명 우학, NY파트너 영종도 복합리조트 회장)과 이경규 부회장(방송인)을 비롯한 2015신임 신도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1월 17일 취임 넓은 인맥 장점 “불사 통해 젊은층 포섭을” 부회장 16명 등 신도조직 쇄신

이날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남판우 신도회장은 1,200년 고찰도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봉은사가 어떤 절입니까? 신라 때 창건된 역사와 전통의 고찰이 아닙니까. 북쪽으로 경기로부터 남쪽으로 현대백화점 자리, 서쪽 끝 선릉에서 동쪽 단천까지가 다 봉은사 터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판우 신도회장은 “사실상 현재 몸뚱만 남은 것이 봉은사”라며 “도량일신에 불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판우 신도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젊은 연예인이 문기를 ‘오래된 봉은사’라고 하던데 50년 정도 되었느냐고 물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려주며 “역사와 전통에 만 기대고 있으면 젊은 층에 외면당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길 하나 사이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는 매일 국제회의가 수시로 열립니다. 이런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봉은사입니다. 봉은사를 청정도량으로 시대에 맞게 바꾸고 단장하는 것이 또 다른 공덕일 것입니다.”

남판우 신도회장은 2008년 재단법인 조용필장학재단 이사를 지냈으며 2011년 조계사 교문을 맡기도 했다. 2012년부터 NYpartners 영종도복합리조트 회장으로서 있으며 매일 참선수행을 해오는 독실한 불자다.

남판우 신도회장은 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따르고 자비와 광명을 베푸는 공덕을 쌓아야 한다”며 “자비심을 내어 주위 소외계층을 돌보고 도량을 가꾸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주지 원학 스님은 남판우 회장, 민병련 사무총장, 방송인 이경규 씨 등 부회장 16명과 감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발대식에서는 텔런트 이숙 씨 등 14명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기도 했다.

원학 스님은 “신도회가 중심이 돼 주인의식을 갖고 발전에 임해달라”며 “신도회는 또한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조직으로 찾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이끄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규 봉은사 신도회 부회장 및 홍보대사는 “종립 동국대 출신으로 모든 것은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며 “방송계에서 화를 잘 낸다고 해 ‘버럭’으로 불리는데 이제는 ‘자비’로 불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국제포교사 유대 강화토록 노력할 것”

신외군 제9대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



정기 수행활동 모임 등 만들어 내부결속 강화하는 게 목표 프로그램 공모... 포교 풍부히 할 것

“국제포교사회원들이 외국인 포교를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외군 제9대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사진)은 올해 국제포교사회의 사업 계획을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2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이·취임식에서 제9대 국제포교사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신 회장은 올해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제포교사들 간 정기적인 수행활동을 통해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 회장은 “개인적 발원으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결속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일 첫째 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영어법회를 하는데 이 시간을 활용, 참선·염불반 등을 만들어 회원들이 원하는 수행을 하고 체험

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 회장은 “올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제포교사회 내에서 사업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해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업계획을 모집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제포교사회는 오는 9월 열리는 나란다축제에서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열 계획도 갖고 있다.

개신교 신자였던 신 회장은 불자였던 모친이 2004년 돌아가시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모친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르면서 염불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 이후 불광사 신도기독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내친김에 주재원 시절 동남아시아, 미국 등에서 생활한 경험을 살려 국제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해 2010년 제14기 국제포교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신 회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108로 하루를 시작하며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개인적 수행활동도 열심히 하며 국제포교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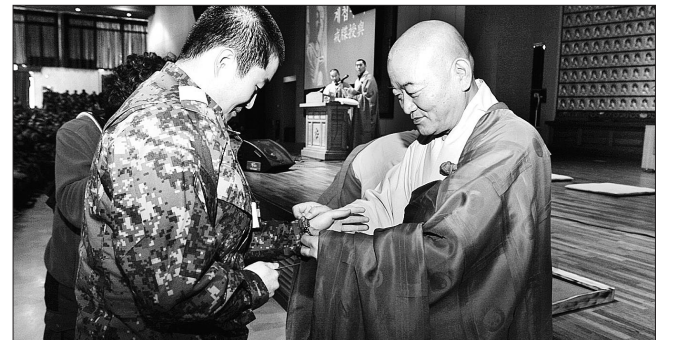
천태종 상월대조사 탄신법요 성료



한국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탄신 103주년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1월 18일 오전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도용 중정예하를 비롯한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준광 스님은 “21세기 천태종풍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 또 정진하고, 대한민국 국인이 응창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법요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관음종 흥파 총무원장 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육군훈련소 을미년 첫 수계법회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17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을미년 첫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수계사로 공군본부 군종실장 각원 허현규 군승 등 현역 군승 7명과 충남 포교사단 포교사 15명이 동참했으며, 훈련장병 3,600여명이 수계받았다.

노덕현 기자

혜원정사,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혜원정사(주지 원학)가 1월 20일 불우이웃을 위한 바자회를 경내에서 개최했다. 매년 3회 열리는 혜원정사 바자회는 10년 동안 꾸준히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행단체 대표 집값선 단장은 “구매자는 좋은 물건을 사서 좋고, 판매 봉사자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자회는 모두를 위한 행복의 자리”라며 소감을 밝혔다.

바자회로 모은 성금은 1000만원으로 장학금, 불우소외이웃 돕기 및 혜원정사 산하 복지관에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I.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 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신립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득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불교학과 신입생은 통신반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5. 법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에 원칙으로 한다.(편입학생가)
6.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7.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중도양성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II. 모집인원 및 편제

Table with 4 columns: 학과 (Subject), 모집인원 (Recruitment), 편제 (System), 비고 (Remarks). Rows include 불교학과 (Buddhism) and 법패학과 (Dharma).

III. 전형일정

Table with 3 columns: 구분 (Category), 날짜 (Date), 장소 (Location). Rows include 원서교부 및 접수, 서류심사 결과통지, 입학전형, 합격자 발표.

*입학전형의 필기_실기_면접고시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IV. 지원자격

-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신립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로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과·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과·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V.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Table with 3 columns: 학과 (Subject), 제출서류 (Documents), 제출방법 (Submission Method). Rows include 공통 (Common) and 법패학과 (Dharma).

VI. 전형료

불교학과·법패학과 : 50,000원

입학문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교무부

www.taego.kr
120-150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112)
TEL: (02) 739-3450 FAX: (02) 739-3470